『동사찬요』「열전」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인식*

박 인 호**

차 례

Ⅰ. 머리말
Ⅱ. 『동사찬요』「열전」의 편찬과 서술
  1. 판본별 「열전」의 변화
  2. 「열전」의 서술 원칙
Ⅲ. 『동사찬요』「열전」의 내용과 역사인식
  1. 「열전」의 구성과 내용
  2. 「열전」에 나타난 역사인식
Ⅳ. 맺음말 -사학사적 의의-

【국문초록】

『동사찬요』는 책의 대부분이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전」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이 책은 조선중기 이후 활발하게 편찬되기 시작하였던 인물 관련 전문 저술의 선구를 이룬다.

서술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범례는 8권본에는 13개조였으나 11권본에는 16개조로 바뀌었다. 범례에서 나타나는 열전의 서술원칙은 엄격한 포폄의 적용, 인물의 경중에 따른 차별화된 서술, 자료의 충실한 인용과 인용처 표기, 고려말 절의파 인사들에 대한 폭넓은 자료 수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조선전기 『경국대전』 중심의 국가 체제 정비의 역사학적 산물이 『동국통감』이며, 이에 따라 『동국통감』은 국가 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제도적 전개 등을 중시하였다. 이에 반해 임진왜란 후에 나온 『동사찬요』는 편년적 기술 속에서 사

* 본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임.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라진 인간의 활동을 주목하였다. 물론 이때의 인간 활동은 이전보다 도덕적 명분과 절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었다.

오운은『동사찬요』「열전」에서 과거의 인물을 정리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직간을 행하였거나 혹은 참소로 인해 핍박을 당하면서도 충성과 절의를 행한 인물을 특별히 뽑아 수록하고 있다. 특히 반적과 권흉에 대해서는 제 명대로 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결론격으로 적어 인물 평가에서 충성과 의리라는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의 성패는 논할 바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인물의 일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명분론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은 조선전기 관학자들이 일의 성패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 논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다.

이를 통해 오운이 강조한 것은 바로 옛 것을 끌어 현재의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점 때문에 이 책은 당파를 초월하여 후대 역사가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주제어

오운,『동사찬요』,「열전」, 범례, 포폄, 춘추필법, 충절 의리, 유교적 도덕주의

Ⅰ. 머리말

吳澐(1540~1617)의『東史纂要』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찬사서라는 사서의 외형적 특징에 주목하여 접근하였던 연구[1]에서 시작하여 서인에 대립되는 동인의 역사인식으로서의『동사찬요』에 주목한 연구[2], 서지적인 측면에서『동사찬요』의 편찬과정을 정리

1) 정구복,「16-17세기의 사찬사서에 대하여」,『전북사학』1, 1977;『한국근세사학사』, 경인문화사, 2008, 131-157쪽.

2) 한영우,「17세기 초의 역사서술 -오운의 〈동사찬요〉와 조정의 〈동사보유〉-」,『한국사학』6, 1985;『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10-49쪽.

한 연구[3] 등이 있으며, 편찬과정의 추이와 이를 통한 역사지리인식의 변화를 구명한 연구[4]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동사찬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동사찬요』는 책의 대부분이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전」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이 책은 조선중기 이후 활발하게 편찬되기 시작하였던 인물관련 전문 저술의 선구를 이룬다. 또한 이후 편찬된 역사서들은 『동사찬요』「열전」 가운데서도 고려말 인물들의 서술에 대해 당색을 불문하고 주목하였다. 그렇다면 『동사찬요』「열전」의 어떠한 부분이 당대와 후대의 주목 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사찬요』「열전」의 기본적인 체재는 봉진본 혹은 8권본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후의 편찬과정에서 「열전」 부분의 서술에 일부 수정이 있었다. 오운은 1606년 영주에서 『동사찬요』의 편찬을 일단락하고서 이를 바탕으로 봉진본을 만들었으며, 1609년 8권의 활자본을 간행하였다. 그후 이를 수정하여 11권으로 만들었는데 8권본의 판목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로 들어간 부분만 판목을 별도로 만들어 간행하였다. 1614년에는 다시 「지리지」를 보충해 넣어 12권본으로 간행하였다. 그 뒤 후손들에 의해 1908년 영주 삼우정에서 16권본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판본의 변화와 함께 수정된 「열전」 내용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사찬요』에서 「열전」이 가지는 위상과 사학사적 의미에 대한 검토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 또한 「열전」 편찬에

---

3) 김순희, 「오운의 〈동사찬요〉의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연구』 24, 서지학회, 2002, 393-420쪽.
박장승, 「계림부(경주부) 간행 〈동사찬요〉에 대하여」, 『경주문화』 9, 경주문화원, 2003, 300-313쪽.

4) 박인호,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7, 29-61쪽.

서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열전」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동사찬요』에서 「열전」의 편찬이 가지는 의미가 모두 구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동사찬요』 「열전」에 대해서는 「지리지」의 내용에 비판적이었던 한백겸조차도 「열전」의 상세함을 높이 평가하였으며,[5] 서인이었던 유계는 『여사제강』을 편찬하면서 『동사찬요』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열전」에 있다고 하였으며, 오운의 안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6] 일부 『동사찬요』를 필사한 책에서는 아예 책제를 '고려명신록'으로 붙이기도 하였다.[7]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동사찬요』 「열전」의 편찬이 가지는 사학사적 의미와 이에 바탕한 오운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동사찬요』 「열전」의 편찬과 서술

1. 판본별 「열전」의 변화[8]

(1) 봉진본

오운은 영주 은거생활 중인 1606년(선조 39) 67세의 나이로 『동사

---

5) 韓百謙, 『久菴遺稿』, 「雜著」, 〈東史纂要後敍〉. "但詳於列傳而略於本記 又無表志 其國之法制沿革 其君之政治得失 皆無以考其終始 此爲可欠"

6) 유계, 『여사제강』, 범례; 아세아문화사, 1976, 4쪽. "吳氏澐爲是之病 作纂要 以便觀覽 而但紀年則所載太略 事實之可攷者 盡在列傳 是亦未免一冊而二書 參考之難 猶夫前也"

7)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동사찬요』에 수록된 찬자미상의 後識에는 아예 '高麗名臣傳'이라고 題하고 있다.
『東史纂要』, 〈書高麗名臣傳後〉. "東史纂要 卽高敞吳氏澐所撰 編年及列傳凡七冊 (中略) 至於列傳所載 槩是當世名臣 而文簡而事核 信有史家筆法 故玆敢表而出之 題其篇目曰高麗名臣傳"

8) 『동사찬요』의 판본별 변화상은 박인호,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2007, 32-41쪽 참조.

찬요』를 편찬하였다. 趙亨道가 쓴 행장에 의하면 7권으로 된 책을 유성룡이 보고서 크게 찬탄하고 선조에게 한 본을 봉진하였다고 전한다.[9] 선조에게 봉진한 책은 필사본일 가능성이 크며 7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09년 간행본을 통해 유추하면 권1은 국도기년, 권2는 삼국명신, 권3-7은 고려명신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권3의 韓彦恭과 金審言은 최승로 아래에 들어가야 하는데 魏繼廷 아래에 배치되어 있다. 8권본에 "此下二人 當在崔承老之次"라는 부기가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기사가 봉진본에 이미 있었는지, 혹은 8권본 편찬 당시 별도로 들어갔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8권본에서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모두 '補遺'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인물에 대한 열전 기사는 이미 봉진본 당시 추가되어 있었다고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1609년 간행본에서 권8은 별록이라고 별도로 표현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권8 전체가 봉진본에서는 들어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봉진본「열전」수록 인명

권	명신 시대	명신
2	삼국명신	乙豆智・松屋句, 高福章, 乙巴素, 乙支文德, 勿稽子, 朴堤上, 金后稷, 實兮, 金庾信, 金仁問, 强首, 薛聰, 金陽, 崔致遠, 新羅忠義傳(附 孝烈), 麗濟義烈
3	고려명신	洪儒・裴玄慶・申崇謙・卜智謙, 庾黔弼(朴述熙 李忩言), 崔彦撝, 崔凝, 徐弼, 崔承老, 徐熙(訥 恭), 崔沆・蔡忠順, 姜邯贊, 智蔡文(祿延), 楊規, 河拱辰, 王可道, 崔冲, 崔惟善(惟吉 思諏 允儀), 朴寅亮, 鄭文, 魏繼廷, 〈韓彦恭, 金審言〉

9) 趙亨道,『竹牖先生文集』,「附錄」下,〈行狀〉. "裒集東國諸史 刪冗節煩 撰成七卷 名之曰東史纂要 不但以儒名者爭先覩而喜玩之 至於西厓柳相公 大加贊歎 以爲深得史家之旨 且以爲可達於君上 故封進一本 上有標準儒林之敎"

4	(고려명신)	尹瓘(吳延寵 尹彦頤), 金黃元, 李資玄(郭輿), 金仁存, 金富佾, 金富軾(君綏), 金富儀, 林完, 鄭沆, 李之氐, 申淑, 李公升, 崔惟淸, 鄭襲明, 文克謙, 柳公權, 庾應圭(錫), 金甫當, 韓惟漢, 崔讜(詵), 李仁老(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
5	(고려명신)	趙冲, 金就礪, 金仁鏡, 金之岱, 李公老, 李奎報, 兪升旦, 朴犀(宋文胄), 金慶孫, 崔椿命, 崔滋, 金坵, 李藏用, 白文節, 郭預, 沈諿, 金方慶(永旽 永煦 齊顔 ○ 金周鼎), 朱悅, 柳璥(伍允孚), 李承休, 鄭可臣, 金晅(開物)
6	(고려명신)	安珦, 元冲甲, 洪子藩(許珙), 金怡(崔誠之 崔文度), 崔有渰, 鄭瑎(誧), 朴全之, 金台鉉, 閔宗儒, 崔瀣, 禹倬, 權溥, 李兆年, 金倫, 李齊賢, 韓宗愈, 李凌幹, 王煦, 安軸, 安輔, 李穀, 鄭世雲・安祐・金得培・李芳實
7	(고려명신)	尹澤, 李仁復, 李嵒, 金光載, 李公遂(李子松 林樸), 柳淑, 元松壽, 李存吾・鄭樞, 韓脩, 慶復興, 崔瑩, 朴尙衷(鄭思道 金九容), 李穡, 鄭夢周(李崇仁 金震陽 李種學)

(2) 8권본

일본의 내각문고 소장인 8권 8책의 『동사찬요』가 있다.[10] 8권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목록, 범례(13조), 찬집제서, 권1 국도기년, 권2 삼국명신, 권3-7 고려명신, 권8 별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09년 경주에서 간행되었다.

인물과 관련하여 수정된 부분을 보면 권2의 마지막 安市城主에 대한 부분을 '補遺'라고 적어 보충하고 있으며, 권7의 마지막에는 吉再 이하 추가된 부분을 '補遺'라고 적고 있다.[11] 이 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범례에

10) 日本內閣文庫 史224-1, 8권 8책.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복사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BA211-61. 四周雙邊, 半葉匡郭:18.2×14.6cm, 有界, 半葉 10行20字, 註雙行, 版心:東史, 上下內向花紋魚尾, 24.5×16.0cm.

11) 보유 표제 하에 다음 "冶隱以下 數君子 風節表表 在人耳目 而原史不載 博考諸書 補錄如左"의 세주로 추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별도로 수록 경위를 밝히고 있다.[12] 따라서 吉再, 徐甄, 李養中, 金澍를 다룬 보유 부분은 7권의 봉진본에 수록되지 않았다가 8권본에서 추가되었다. 마지막 권8에는 '別錄' 제하에 반적과 권흉을 적고 있어 이 역시 8권본 간행 때 보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8권본 추가 인물

권	형태	
2	補遺	安市城主
7	補遺	吉再, 徐甄, 李養中, 金澍
8	別祿 (叛賊 權兇)	解仇, 芎加, 泉蓋蘇文, 憲昌(以上 三國), 王規(以下 高麗), 康兆, 李資謙, 妙淸・柳邑・趙匡・趙昌言・安仲榮, 鄭仲夫・李義方・李高・李義旼, 崔忠獻・崔瑀・崔沆・崔竩, 金俊, 林衍, 崔坦・韓愼, 裵仲孫・盧永僖, 趙日新, 奇轍・權謙・盧頙, 金鏞, 辛旽

(3) 11권본

1609년에서 1614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8권(실제로는 11권) 7책의 『동사찬요』가 있다.[13] 이 책은 8권본의 판목을 그대로 영주로 가져와 이용하면서 새로 들어간 권1상, 권1중, 권1하, 권2상의 4권만 별도로 판목을 다시 만들어 간행하였다. 새로 만들면서 범례를 일부 수정하였다. 8권본의 권2 삼국명신이 권2하로 편성되고, 이어 권3-8은 이전의 8권본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

12) 『동사찬요』, 범례. "冶隱以下四君子 原史不見 故初不書 追得於諸書補錄之 至於籠巖風節 尤奇特 窮搜行蹟於其後裔而書之"

1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8卷 7冊, 四周雙邊, 半葉匡郭:22.8×18cm, 有界, 半葉, 10行20字, 註雙行, 版心:東史, 上下內向花紋魚尾, 34.6×22.4cm. 외형으로는 8권 7책이나 총 11권에 해당하는 『동사찬요』를 권1상, 권1중, 권1하, 권2상・하, 권3・4, 권5・6, 권7・8로 장정하였다.

인물과 관련하여 수정된 부분을 보면 권2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목에 별도로 '下'자를 추각하였다. 그리고 8권본 권7에서는 李存吾 다음에 바로 韓脩로 이어지나 11권본에서는 이존오 아래에 李集이 부가되고 별도로 洪彦博과 金濤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14]

〈표 3〉 11권본 추가 인물

	형태	
7	(부가)	李存吾 아래 李集
7	(추가)	洪彦博, 金濤

(4) 12권본

12권본은 영주에서 간행된 것으로 1614년에 쓴 오운의 발이 책의 끝에 수록되어 있어 간행시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8권 8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권 8책이다. 규장각 등에 완본이 있다.[15] 이전의 11권본과 비교하면 권2중의 지리지가 별도로 보각되어 들어갔다.

인물과 관련하여 수정된 부분을 보면 권7의 보유 이하에 元天錫이 들어갔다. 그 외에도 권2상 28장 후면 쌍행 주 위에 있던 "政堂文學白文寶傅之(정당문학 백문보를 사부로 하였다)"라는 부전지를 새로이 고쳐서 판각하였다.

---

14)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는 홍언박과 김도의 이름이 추가되지 않았다.

15) 서울대학교 규장각 4230-2. 8卷 8冊, 四周雙邊, 半葉匡郭: 21.8×17.1cm, 有界, 10行20字, 小字雙行, 版心: 東史, 上下內向花紋魚尾, 35.4×22.5cm.

〈표 4〉 12권본 추가 인물

	형태	
7	(추가)	元天錫
7	(보각)	白文寶

(5) 16권본

1908년 영주 三友亭에서 『동사찬요』의 간행이 있었다.[16] 새로 판목을 만들어 간행하였는데 11권본과 12권본이 8권본 권2 이하의 권차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 중, 하로 권을 나누었던 것을 수정하여 모두 16권 8책으로 분권하였다.

인물과 관련하여 수정된 부분을 보면 열전은 권10 삼국명신, 권11-15 고려명신, 권16 별록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권11 고려명신에 수록되었던 한언공과 김심언의 위치를 최승로 아래로 이동시켜 놓았다.

〈표 5〉 16권본 추가 인물

	형태	
11	(이동)	韓彦恭, 金審言

2. 「열전」의 서술 원칙

서술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범례는 8권본에는 13개조였으나 11권본에는 16개조로 바뀌었다. 두 범례를 비교해 보면 12개조는 중복이 되나 8권본의 2번째 "국도, 명호, 연혁은 여러 책에서 찾아 살펴 아래에 분

16) 16卷 8冊, 四周雙邊, 半郭匡郭:19.5×15.4cm, 有界, 10行 20字, 小字雙行, 版心:東史, 內向2葉花紋魚尾, 29.5×18.8cm.

주하였다"[17]는 범례가 없어지고 대신 11권본에는 2~5번째의 범례 4개조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8권본의 10번째 범례가 11권본에는 16번째로 이동하였다.

한편 8권본의 5·12·13번째 범례 일부가 11권본에서는 축약되어 수록되었다. 생략된 부분의 내용은 모두 열전과 관련된 것으로『동국통감』에서 보이지만 사적이 미비한 자는『고려사』에서 취하였다는 것, 고구려와 백제의 義烈한 자는 그 아래에 부기하였다는 것, 叛賊은 한 자를 낮추어 적었는데 이것이『고려사』와 다른 점이라는 것 등의 설명이다.[18] 특히『고려사』와는 다르게 반적에 대해 한 자를 낮추어 적는다는 언급은 조선전기 관학에서 인물을 보는 관점과는 다름을 천명한 것으로, 오운이『동사찬요』의 편찬에 춘추필법에 의한 포폄의 정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권본의 16개조 범례 가운데 열전에 대한 것은 모두 11개조에 이른다. 열전에 대한 것이 아닌 5개조의 범례는 기자를 다루어 동국 풍속의 由來를 보여준다거나, 갑자년은 별도로 표시하여 주기가 돌아옴을 보인다거나, 사대교린과 조빙은 반드시 기록한다는 등 자료의 경중에 대한 것과『동국통감』에 있는 사론을 가져오면서 고려 당시의 사관이 쓴 사론은 史臣으로 적고 통감을 쓸 당시 신하들의 사론은 史氏로 표기한거나, 자신

---

17)『동사찬요』8권본 범례. "一 國都名號沿革 搜攷諸書 分註其下"

18)『동사찬요』8권본 범례 가운데 뒤에 11권본에서 축약되었던 내용은 (　　)의 부분이다.

一 一人事蹟 逐節散出而繁冗者 或言行可傳而紀載闕略者 考諸碑誌及他書 湊集添刪 頗加檃括 然一言一事 皆有考據 不敢杜撰 或全用他書語者 別錄而記其來處 (0 見於通鑑而事蹟未備者 全取高麗史)

一 三國時死節之士 新羅最多 彙次爲別傳 孝烈附焉 (以麗濟義烈敍其下)

一 叛賊之類 雖抄列事蹟 不得比名臣立傳 皆低一字書之 以寓袞鉞之意 (此與麗史凡例異)

의 주장은 원 아래에 按자로 표시한다는 등의 서술의 원칙에 대한 것이다.[19]

오운은 국가에 지대한 공을 남긴 사람을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인물의 선후에 따라 서술하였다. 11권본 범례에서 보이는 여러 내용을 종합하여 적용된 서술 방법과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추필법에 의한 엄격한 포폄 정신의 적용이다.

범례에서 이러한 원칙이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외설적인 것은 적지 않는다는 것과 포폄의 뜻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에서 볼 수 있다. 범례의 첫머리에는 선악과 군왕의 失德을 반드시 적되 장막 속의 외설적인 것은 굳이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20] 조선전기 관학자들은 괴이한 것도 적고자 하였으나 조선중기 사림 학자들은 괴이한 것을 모두 생략하고 적지 않으려고 하였다. 한백겸도 이점에 동의하여 고려말의 추한 말을 모두 삭제한 것을 극찬하고 있다.[21] 또한 반적의 무리들은 비록 사적을 뽑아 열거는 하나 명신을 입전하는 것과는 차별을 두어 모두 한

---

19) 『동사찬요』 11권본 범례 가운데 자료의 경중이나 서술의 원칙을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一 箕子東來事蹟 本史外紀及見於他書者 參考而備載之 欲使看此書者 開卷第一知東國風敎之所自
一 東國原史 編年之書 今此書 只纂大要 不暇備載年序 而新羅始祖起於甲子 東史之作始於新羅 故其遇甲子 必書于上 以見天運之周 亦易攷東國歷數之大槩
一 事大交隣朝聘往來 必書之 至於麗季並事宋遼金蒙古 或絶或和 隨事書之
一 本紀所載先儒及史家評論 間取而節要 當時史官則稱史臣 撰史時諸臣則稱史氏
一 竊附愚見處 圈下只書按字

20) 一 善之可以勸惡之可以戒者 必書 且如君王失德必書者 爲以垂戒至於帷薄之間淫褻 隱惡近於禽獸處 不必形之史筆 以詔後世 雖以桀紂楊廣之淫慝 應無所不至 而古史所記未見 如今史書之所云 殊非聖人闕文之意 故於此類皆略之

21) 『竹牖先生文集』, 「附錄」, 下, 〈奉謝吳令公書 韓久菴百謙〉. "嘗見史略 麗季昏曇相繼 天厭人棄 其亡固有說矣 至於閨闥隱暗之事 極其醜 狼籍載錄 維恐後世不聞知 君子棄婦絶友 惡言猶不敢出口 陽村乃麗之世臣 亦嘗建事昏朝 革命之際 死生雖不敢易言 其何忍至此 尋常爲陽村恨之 今纂要 此等醜穢之說皆刪去 眞得作史之體 甚善甚善"

자를 낮추어 적어 처벌하는 뜻을 보이고 있다.[22] 한편 구체적인 서술에서도 포폄의 표현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서 해구에 대해 害之라고 하였으나 오운은 이를 弑之라고 고쳐 포폄의 뜻을 한층 강하게 표시하였다.

둘째, 인물 선정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업적의 경중, 지위의 상하, 행적의 유무 등에 따라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고서 입전하였다.

오운은 인물의 선후에 따라 명신을 기술하되 혹 대를 이어 이름을 떨친 자이거나, 혹 동시에 같은 일을 하면서 행적이 많지 않은 자이거나, 혹 당시의 일로 이름이 나타나는 자는 모두 크게 나타나는 자의 아래에 붙여 놓았다.[23] 庾黔弼(朴述熙 李忞言), 徐熙(訥 恭), 智蔡文(祿延), 崔惟善(惟吉 思諏 允儀), 尹瓘(吳延寵 尹彦頤), 李資玄(郭輿), 金富軾(君綏), 庾應圭(錫), 崔讜(詵), 李仁老(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 朴犀(宋文胄), 金方慶(永旽 永煦 齊顔 ○ 金周鼎), 柳璥(伍允孚), 金晅(開物), 洪子藩(許珙), 金怡(崔誠之 崔文度), 鄭瑎(誧), 李公遂(李子松 林樸), 朴尙衷(鄭思道 金九容), 鄭夢周(李崇仁 金震陽 李種學) 李存吾(李集) 등이 그것이다.

한편 같은 일을 하였는데 공업의 상하를 다투기 힘들 경우에는 아울러 하나의 전으로 하였다.[24] 삼국명신의 경우 乙豆智・松屋句, 고려명신의 洪儒・裴玄慶・申崇謙・卜智謙, 崔沆・蔡忠順, 鄭世雲・安祐・金得培・李芳實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반적・권흉에서는 열거방식으로 전을 만든 것이 여러 건 있다. 妙淸・柳昷・趙匡・趙昌言・安仲榮, 鄭仲夫・李義方・李高・李義旼, 崔忠獻・崔瑀・崔沆・崔竩, 崔坦・韓愼, 裵仲孫・盧永僖, 奇轍

22) 一 叛賊之類 雖抄列事蹟 不得比名臣立傳 皆低一字書之 以寓袞鉞之意

23) 一 名臣抄列 並以人物先後爲序 或有繼世名流 或有同時做事而行蹟不多者 或有因時事而名見者 併附於首見人之下 如徐訥附於徐熙 庾碩附於應圭之下 吳延寵附於尹瓘 崔誠之附於金怡之下 尹鱗瞻附於金甫當 鄭思道金九容著於朴尙衷之下之類

24) 一 同事而功業不相上下者 併爲一傳 如麗初洪儒等四功臣 鄭世雲三元帥之類

·權謙·盧頙, 李存吾·鄭樞 등이 그러하다.

사업과 행적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계된 자는 여러 곳에서 찾아서 모았는데 비록 많아도 모두 모았으며, 언행이 드러나지 않고 문장에 힘쓴 자는 그 대략만을 적었다.[25] 예를 들면 金庾信, 徐熙, 尹瓘, 趙沖, 金就礪, 金方慶과 安祐·金得培·李芳實 三元帥와 같이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킨 무장이나 혹은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와 같이 무너지려는 국가를 위해 절의를 지킨 국가흥망에 관계된 이는 아무리 내용이 많아져도 모두 모았으나, 대신 李奎報와 같이 언행이 크게 뛰어나지 못하고 문한에만 힘썼던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그 대략만을 적었다.

특히 삼국시대에 죽음으로 절의를 지킨 이는 신라가 가장 많아 정복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신라의 화랑인 貴山·箒項, 讚德, 奚論, 訥催, 竹竹, 丕寧子, 金歆運, 盤屈·官昌, 匹夫, 素那 등과 나당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逼實·夫果·驟徒·金令徹, 신라 멸망기 경순왕의 왕자 등은 사료의 적고 많음을 떠나 모아서 별도로 傳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라의 于老妻, 薛氏, 孫順, 知恩 등 효열을 부가하였다.[26] 그리고 고구려의 密友, 紐由, 溫達, 백제의 成忠·興首, 階伯 등의 의열은 별도로 전을 만들었으며, 효열로 都彌를 수록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따로 명신을 수록하지 않고 의열만 수록하고 있다.

셋째, 별도 입전, 내용 보충과 관련한 서술의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오운은 명신 사적이 본기 중의 여러 곳에 나와 한 사람의 시말을 쉽게 알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열전을 만들었으며, 열전에는 없으나 꼭 적

25) 一 事業行蹟關國家興衰者 旁搜采輯 雖多不厭 如金庾信徐熙尹瓘趙冲金就礪金方慶三元帥及牧隱圃隱之類 若言行不大顯 致力於文翰而已者 則省節而書其大槩 如李奎報之類

26) 一 三國時死節之士 新羅最多 彙次爲別傳 孝烈附焉

어야 하는 사람은 죽었다는 말의 아래에 그 행적을 적었다.[27] 예를 들면 乙豆智・松屋句, 高福章 등은 『삼국사기』에 별도로 입전되지 않은 인물들이나 그 충열에 따라 별도로 입전하였다.

그리고 인물의 사적이 번잡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 첨삭을 가하되 한 말이나 한 일이라도 함부로 적어 넣지 않고 모두 근거에 입각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와 별도로 인용한 곳은 인용처를 적어 두었다.[28] 다른 사람의 글은 안설에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某曰'을 덧붙였으며, 그 외 전문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하단에 『遊頭流錄』, 『勝覽』, 『謏聞瑣錄』, 『本史』, 『吳山志』, 『續蒙求』, 『慵齋叢話』, 『大東韻府群玉』, 『籠巖先生傳』 등의 인용처를 밝혀 두었다.[29] 또한 유학의 기치를 높였으나 전하는 내용이 간략한 자는 선현의 말씀 가운데 한 두 조를 취하여 보충하였다.[30] 최치원에 대한 매계 曺偉의 왈, 이자현에 대한 퇴계 李滉의 왈, 한유한에 대한 남명 曺植의 왈, 안향에 대한 신재 周世鵬의 왈, 우탁에 대한 李滉의 왈, 이조년에 대한 李滉의 왈, 이색에 대한 任弼仲의 왈, 길재에 대한 점필재 金宗直, 퇴계 李滉, 미암 柳希春, 서애 柳成龍, 魚潛夫시의 왈, 농암 김주에 대한 尹根壽의 찬 인용 등이 그것이다. 선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는 오운의 유학자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넷째, 고려말 절의 인사들에 대한 기록이 『고려사』에는 없어 처음에는 적지 않았으나 여러 서적에서 자료를 모으거나 후손에게 탐문하여 기

---

27) 一 名臣事蹟 散出於本紀中 一人始卒 未易參究 竊效班馬之例 抄列爲傳 其不在列傳而不可泯沒者 略著行蹟於書卒之下

28) 一 一人事蹟逐節散出而繁冗者 或言行可傳而紀載闕略者 考諸碑誌及他書 湊集添刪 頗加檃括 然一言一事皆有考據 不敢杜撰 或全用他書語者 別錄而記其來處

29) 구체적인 인용처를 밝힌 곳은 대부분 새로 인물이 들어간 경우이다.

30) 一 遜世高蹈 與立幟吾道 而本史紀略者 有先賢言論見諸遺稿 竊取一二條 以補之 如韓惟漢李資玄安文成禹祭酒之類

록하였다.

특히 길재의 절의는 크게 드러나지만 『고려사』에 적혀 있지 않아 감히 적을 수 없었으며, 야사가 없어 숨은 행적이 모두 매몰되었던 점을 애석해 하였다.[31] 그리하여 후일 『고려사』에도 빠져있던 吉再, 徐甄, 李養中, 金澍 등 4인의 행적을 여러 서적에서 찾아 추가하여 놓았다.[32] 특히 김주의 경우에는 직접 후손의 집을 방문하여 탐문하여 자료를 찾아 기술하였다. 한편 12권본에는 元天錫이 별도로 추가되었다. 이에는 고려 말기 무너져가는 고려에 충성을 표시하였던 절의파를 숭상하는 오운의 생각이 작용되었다.

요컨대 범례에서 나타나는 열전의 서술원칙은 엄격한 포폄의 적용, 인물의 경중에 따른 차별화된 서술, 자료의 충실한 인용과 인용처 표기, 고려말 절의파 인사들에 대한 폭넓은 자료 수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Ⅲ. 『동사찬요』「열전」의 내용과 역사인식

1. 「열전」의 구성과 내용

여기서는 체계가 완비된 12권본을 중심으로 열전의 체계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열전」은 삼국명신 1권, 고려명신 5권, 반적·권흉을 다룬 별록 1권

---

31) 一 言行見於史可敬者 雖略必書 但無他書可據 不得備叙始末 又如冶隱風聲節義 垂宇宙而不載於原史 不敢書 姑竢博雅君子 或得全史 而追補之 吾東方無野史 隱行頗埋沒可惜

32) 一 冶隱以下四君子 原史不見 故初不書 追得於諸書補錄之 至於籠巖風節尤奇特 窮搜行蹟於其後裔 而書之

의 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전」의 기본 자료는 『삼국사기』와 『고려사』이며, 대부분 「열전」 자료에서 축약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내용을 축약할 때는 해당자의 대표적인 행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전의 「열전」을 대폭 축약하고 있다.

권2의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국명신에는 乙豆智・松屋句, 高福章, 乙巴素, 乙支文德, 勿稽子, 朴堤上, 金后稷, 實兮, 金庾信, 金仁問, 强首, 薛聰, 金陽, 崔致遠, 新羅忠義傳(附 孝烈), 麗濟義烈을 다루고 있다.

乙豆智・松屋句[33]과 高福章[34]은 모두 『삼국사기』 「열전」에서 별도로 전을 이루지 못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동사찬요』에서 별도의 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형식이다.[35] 을두지・송옥구는 한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며, 고복장은 직언 때문에 죽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록되었다. 본문에서 다룬 乙巴素, 乙支文德, 勿稽子, 朴堤上, 金后稷, 實兮, 金庾信, 金仁問, 强首, 薛聰, 金陽, 崔致遠 가운데 명신으로 들어간 강수, 설총, 김양, 최치원을 제외하고 모두 통일전쟁과정에서 공이 있었던 인물이거나 무장들이었다.

그리고 〈新羅忠義傳(附 孝烈)〉에 수록된 貴山・箒項, 讚德, 奚論, 訥催, 竹竹, 丕寧子, 金歆運, 盤屈・官昌, 匹夫, 素那 등은 통일전쟁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쟁과정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이었으며, 逼實, 金令徹 등은 나당전쟁과정에서 전공을 쌓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신라말 경순왕의 왕자를 다루었다. 부편의 효열에서는 신라의 于老, 孫順, 知恩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편으로 〈羅濟義烈〉을 두어 고구려의 密友, 紐由,

33) 『삼국사기』 14, 「고구려본기」 2, 대무신왕 11년.
34) 『삼국사기』 15, 「고구려본기」 3, 태조대왕 94년
35) 을두지, 송옥구, 고복장, 안시성주 등의 인물 설정은 인물전기집인 權韠(1589-1671), 『海東雜錄』(권4)에 계승된다.

溫達, 백제의 成忠, 階伯 등을 다루었으며, 효열로 백제의 都彌를 수록하였다.

보유로 安市城主를 다루었다.[36] 안시성주를 표제로 내세운 것은 명장이면서도 자료가 전하지 않아 이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현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특별히 추가하여 수록한 것이다.

오운은 신라가 최종 승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충후한 풍습의 양성과 영웅호걸의 탄생으로 설명하고 있다.[37] 임진왜란 때 직접 의병을 이끌었던 오운은 임진왜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랑과 같은 충성스러운 인물이 나타나 나라를 구해주기를 바라고, 또한 이름없이 쓰러졌던 의병들을 발굴하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이러한 삼국시대 전쟁 영웅을 중심으로 한 열전 편찬이 이루어졌다.

권3은 고려 개국공신에서 위계정까지로 특히 거란족의 침입과 관련하여 공을 세운 인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수록된 인물은 洪儒・裴玄慶・申崇謙・卜智謙, 庾黔弼(朴述熙 李忿言), 崔彦撝, 崔凝, 徐弼, 崔承老, 徐熙(訥恭), 崔沆・蔡忠順, 姜邯贊, 智蔡文(祿延), 楊規, 河拱辰, 王可道, 崔冲, 崔惟善(惟吉 思諏 允儀), 朴寅亮, 鄭文, 魏繼廷, 韓彦恭, 金審言 등이다. 〈최승로〉편의 경우 『동국통감』의 사론은 최승로가 시정득실을 논하면서 왕에게 고하는 체모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의 내용이 주된 논지인데, 오운은 비판의 부분을 제외하고 성현의 체모가 있었다는 앞부분의 내용만 남기고 있다.[38] 이에는 忠諫의 정신을 중시하고자 하였던 오운의 생각이 담

---

36) 내용은 『삼국사기』 21, 「고구려본기」 9, 〈寶藏王〉조에서 가져왔다.

37) 『동사찬요』 9(12권본), 「지리지」. "跡其二聖創業 養成忠厚之風 英豪如金春秋庾信 應時挺生 王不待大之言 至此益驗"
박인호, 「전통시대의 신라인식」, 『역사교육논집』 40, 역사교육학회, 2008, 336쪽.

38) 『동국통감』 권14, 고려 성종 원년. "臣等按 賈山至言 劉賁對策 時稱直言 然不若承老

겨 있다.

권4는 고려 숙종대 윤관에서 이인로까지로 여진족의 침입과 관련하여 공을 세운 인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수록된 인물은 尹瓘(吳延寵 尹彦頤), 金黃元, 李資玄(郭輿), 金仁存, 金富佾, 金富軾(君綏), 金富儀, 林完, 鄭沆, 李之氐, 申淑, 李公升, 崔惟淸, 鄭襲明, 文克謙, 柳公權, 庾應圭(錫), 金甫當, 韓惟漢, 崔讜(詵), 李仁老(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 등이다. 金甫當은『고려사』에서 별도의 전을 이루지 못하였던 인물이나, 오운은 일의 성패와는 상관없이 왕에 충절을 바쳤다는 점을 근거로 전을 독립시켰다.

권5는 조충에서 김훤까지로 몽고족의 침입과 관련하여 공을 세운 인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수록된 인물은 趙冲, 金就礪, 金仁鏡, 金之岱, 李公老, 李奎報, 兪升旦, 朴犀(宋文胄), 金慶孫, 崔椿命, 崔滋, 金坵, 李藏用, 白文節, 郭預, 沈諿, 金方慶(永旽 永煦 齊顔 ○ 金周鼎), 朱悅, 柳璥(伍允孚), 李承休, 鄭可臣, 金晅(開物) 등이다.

권6은 안향에서 이방실까지 원간섭기에서부터 공민왕대까지 활동하였던 인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수록된 인물은 安珦, 元冲甲, 洪子藩(許珙), 金怡(崔誠之 崔文度), 崔有渰, 鄭瑎(誧), 朴全之, 金台鉉, 閔宗儒, 崔瀣, 禹倬, 權溥, 李兆年, 金倫, 李齊賢, 韓宗愈, 李凌幹, 王煦, 安軸, 安輔, 李穀, 鄭世雲・安祐・金得培・李芳實 등이다.

권7은 윤택에서 원천석까지 고려말 혼란 속에서도 직간을 행하면서 끝까지 고려왕실에 충성을 바쳤던 인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論列祖宗行事之美惡 以及時君政治之得失 抗疏切直之爲也 疏中數千百言 皆指斥無隱 觸雷霆而不怵 批逆鱗而不畏 眞古之遺直也 然孟子曰 非堯舜之道 不敢陳於王前 承老之獨以唐宗政要 爲疏中第一義 不能擧明主於三代之上 何耶 承老雖有抗直忠讜之節 而失大臣告君之體 使成宗之治 止於成宗 豈不深可惜哉"

는 조선개국에 참여하였던 공신들은 제외되고 있다. 수록된 인물은 尹澤, 李仁復, 李嵒, 金光載, 李公遂(李子松 林樸), 柳淑, 元松壽, 李存吾・鄭樞, 韓脩, 慶復興, 崔瑩, 朴尙衷(鄭思道 金九容), 李穡, 鄭夢周(李崇仁 金震陽 李種學) 등이다.

그런데 8권본에서는 吉再, 徐甄, 李養中, 金澍 등 고려말 절의를 지킨 신료들을 추가하고 있다. 8권본에서 추가된 길재 이하 부분은 후일 서인 유계가 편찬한『여사제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39] 또한 남인 홍여하가 편찬한『휘찬여사』에서도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40] 농암 김주에 대한 전은 윤근수가 편찬한「농암선생전」을 인용한 것이다.[41] 농암의 경우에는 자료를 찾기 위해 직접 후손을 방문하였다. 11권본에서는 李存吾 아래 李集이 부가되고, 따로 洪彦博, 金濤가 추가되었다. 이집은 三隱과 마찬가지로 고려말 절의를 지킨 점, 홍언박과 김도는 명신으로 공이 많았던 점 때문에 추가되었다. 12권본에서는 元天錫이 추가되었다. 이에는 한백겸의 추천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백겸은 보유에 원천석이 빠진 것에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여 보냈다.[42] 이에 오운은 한백겸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유편에 원천석편을 첨보하였다.[43]

---

39) 박인호,「여사제강 공양왕기의 산삭과 그 정치적 함의」,『한국사학사학보』7, 한국사학사학회, 2003, 14-17쪽.

40) 홍여하,『휘찬여사』34,「명신」13; 여강출판사, 1986, 584-605쪽.

41)「농암선생전」은 윤근수의 문집인『月汀先生集』권4에 수록되어 있다. 후일 이 전은 崔晛이 1618년 편찬한 선산의 사찬읍지인『一善志』, 李尙逸이 金澍・河緯地・李孟專 삼인의 사적을 모아 1668년(현종 9)에 간행한『三仁錄』등에 수록되어 있다.

42)『죽유선생문집』,「부록」하,〈奉謝吳令公書 韓久菴百謙〉. "但節義補遺中 元天錫又見遺 九泉中一言之譽 猶有數耶 錄載別紙 然無及矣可惜 朴上舍一紙 極其博洽 令人感服 其說與令丈答問 相爲出入 故不更作別狀 此意轉謝幸甚"

43)『동사찬요』권7,〈원천석〉. "按 (중략) 頃年韓公伯謙 千里貽書 道以纂入東史 往復再三 愚竊槪念以如是風節 尙未列史傳 玆敢就韓錄刪潤之 追更博詢士友 添刻補遺 諸公之

권8은 別祿으로 叛賊・權兇을 다루고 있다. 삼국시대의 인물로는 解仇, 芍加, 泉蓋蘇文, 憲昌 4명을 다루고 있다. 고려시대 인물로는 王規, 康兆, 李資謙, 妙淸・柳昆・趙匡・趙昌言・安仲榮의 五賊, 鄭仲夫・李義方・李高・李義旼의 四凶, 崔忠獻・崔瑀・崔沆・崔竩의 四世權兇, 金俊, 林衍, 崔坦・韓愼, 裵仲孫・盧永僖, 趙日新, 奇轍・權謙・盧頙, 金鏞, 辛旽을 다루었다. 이들은 묘청난, 무신난, 삼별초난, 공민왕대 난, 신돈난 등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특히 『고려사』 열전에는 표제로 나오지 않았던 묘청난의 柳昆・趙匡・趙昌言・安仲榮, 무신난의 李高, 삼별초난의 盧永僖 등은 별도로 전을 세워 다루기도 하였다. 오운은 고려시기 각종 난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난신에 대해 그 경중과 상관없이 표제로 내세워 역사적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

2. 「열전」에 나타난 역사인식

『동사찬요』 「열전」에는 각 인물들의 절의에 대한 논평[44]이 남아 있으며, 이는 오운의 역사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45] 논평에는 다른 사람의 언설을 인용한 것과 자신의 사론을 붙인 것이 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사론을 인용한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언설 가운데는 『동국통감』에 기술되어 있는 사론을 재인용한 경우와 선현들의 문집에서 나오는 글들을 인용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동국통감』에서 재인용

次第 以原稿散亡殆盡 使麗末詩史實蹟 不得盡傳於百代之後 可勝嘆哉”

44) 權省吾, 『東巖先生文集』 권4, 「雜著」, 〈陶村聞見錄〉. “一日 竹牖公留宿弊廬 (中略) 先君又問竹牖所著東史纂要 答曰 吾只據管見 分類麗朝歷代人物出處 而其尾必有語以結之 竊取義史斷 以竢後之直筆者 盖謙也”

45) 논평은 아니지만 각 인물의 말미에 별도의 인물이나 관련된 자료를 ○ 아래에 첨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용처나 자료를 밝힌 곳이 있다. 〈李集〉편의 『여지승람』, 〈崔瑩〉편의 『용재총화』 등이 그러하다.

한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오운이 사론의 주장에 동의할 경우 수록하고 있다. 『동국통감』 사론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사론은 아예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론의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재인용한 것이다. 『동국통감』에서 재인용한 사론을 보면 모두 역적을 토벌한 것에 대한 극찬, 무모한 싸움에 대한 비판, 절의적 행동에 대한 찬의, 기록 불비에 대한 안타까움, 왕을 잘 섬긴 것에 대한 찬양, 국왕으로서의 위엄 확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표 6〉 참조).

그러나 『동국통감』의 안설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별도로 언급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통감의 안설 아래에 자신의 안설을 덧붙여 놓았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4의 〈이자현〉, 〈김부식〉, 〈김보당〉 3편이 있다.

〈李資玄〉편에서 『동국통감』의 사론은 이자현에 대해 이름을 속이고 행실을 꾸미는 자이며 농민을 괴롭힌 자로 비판하고 있다.[46] 이에 반해 오운의 안설은 관점을 달리하여 왕인 예종이 초야의 선비를 초치함은 아름다운 일로 평가하고 있다.

〈金富軾〉편에서 『동국통감』의 사론은 김부식이 정지상을 주살한 것은 문자 사이의 불평이 아니라 춘추의 적을 정토하는 뜻을 실현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포찬하고 있다.[47] 이에 반해 오운은 관점을 달리하여 왕에게

---

46) 『동사찬요』 4, 『열전』, 〈이자현〉; 여강출판사, 1986, 315쪽. "史氏曰 古之賢士 藏器待時 人君屈體以訪之 虛心而迎之 隆爵以待之 則出而爲世用 若聘莘野獵渭 三顧南陽者 是已 今王之召資玄 果何爲耶 嘗觀資玄 蓄財殖貨 貪鄙吝嗇 矯名飾行 引以自高 鄙哉王之復徵 待以不臣之禮 何哉 然郭輿之行 甚於資玄 王之待輿又甚於資玄 則其於召資玄亦復何論"

47) 『동사찬요』 4, 『열전』, 〈김부식〉; 여강출판사, 1986, 319-320쪽. "史氏按 春秋之法 誅亂討賊 必先治其黨與 妙淸天下萬世之大惡 知常其腹心也 兇謀幻術 驚惑衆聽 極口贊揚 表裡爲奸 知常之爲逆黨 無疑 人人皆得以誅之 況富軾杖鉞專征 先治其黨與 不誅知常 而誰歟 前輩謂富軾 文字間積不平 而殺之 以啓後人之疑 其不知春秋討賊之義矣"

아뢰지 않고 제멋대로 국왕의 근신을 주살하였으니 고려조에 임금을 협박하는 풍습은 김부식이 길을 연 것으로 폄하하였다. 김부식에 대해 조선전기의 관학자와는 달리 국왕에 대한 엄격한 충성을 포폄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金甫當〉편에서 『동국통감』의 사론은 마음이 올바르면 공을 이루지 못하여도 취할만하며 金甫當은 비록 죽음에 임박하여 문신에게 화를 입혔으나 큰 강령에서는 바르며 사람은 성패를 가지고 논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48] 오운은 이에 더하여 庾應圭가 어지러운 나라에서 使命을 받고 흉도들에게서 德을 취한 것은 김보당이 義를 들어 목숨을 버린 것에 비하면 우열이 있음을 지적하여 김보당의 충절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강조하였다. 이 역시 조선전기의 관학자들에 비해 절의적 측면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열전」 소재 『동국통감」 재인용 사론

권	인물	사론	내용
권2하	金陽	權近曰	(통감) 김양의 일은 역적을 토벌하여 신하로서의 의리를 밝힌 것으로 매우 가상한 일임.
		史臣曰	(통감 신등안) 明白正大하기로는 김양만한 이가 없음.
권2하	新羅忠義傳 (金歆運)	權近曰	(통감) 김흠운은 장열하나 경솔하게 죽었으니 헤아림이 부족함.
권2하	新羅忠義傳 (盤屈)	權近曰	(통감) 품일이 관창으로 하여금 적진에 들어가게 한 것은 교훈이 될 수 없음.

48) 『동사찬요』 4, 『열전』, 〈김보당〉; 여강출판사, 1986, 327쪽. "史氏曰 善觀人者 不觀其立功之成敗 而觀其行事之是非 用心之邪正 心苟正矣 事苟是矣 則雖不能成功 亦可取矣 如甫當 是已 獨其臨死一言 再禍於文士 靡有噍類 然大綱旣正 豈可以成敗論人乎 以甫當之賢 而尙不齒於列傳 何也"

권2하	新羅忠義傳(逼實·夫果·騶徒)	史氏按	(통감 신등안) 신라가 망할 때 굴복하지 않은 이는 왕자뿐이니 망할 수밖에 없음.
권2하	羅濟義烈(階伯)	權近曰	(통감) 계백이 출전 전에 처자를 죽인 것은 不道함이 심하며 잔인함.
		史氏按	(통감 신등안) 계백이 처자를 죽인 것은 지조와 절의를 지킨 것임.
권2하	補遺(安市城主)	金富軾曰	(통감) 안시성주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 것은 애석한 일임.
권3	崔承老	史氏曰	(통감 신등안) 최승로는 시정의 득실을 논함에 숨김이 없었으니 성현의 풍도가 있는 자임.
권3	智蔡文	史氏曰	(통감 신등안)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채문에게서 볼 수 있음.
권4	李資玄	史氏曰	(통감 신등안) 이자현은 이름을 속이고 행실을 꾸민 자임.
권4	金富軾	史氏按	(통감 신등안) 김부식이 정지상을 주살한 것은 문자 사이의 불평이 아니라 춘추의 적을 정토하는 뜻을 실현한 것임.
권4	金甫當	史氏曰	(통감 신등안) 마음이 올바르면 공을 이루지 못하여도 취할만 하니 김보당의 일이 그러함.
권5	金就礪	史氏按	(통감 신등안) 조충과 김취려는 出將入相의 인재임.
		李齊賢曰	(통감) 김취려의 원대한 계책과 큰 절의는 견줄 데가 없음.
권5	金慶孫	史臣曰	(통감 신등안) 박서와 김경손은 약졸을 데리고서도 성을 잘 수비하였음.
권6	韓宗愈	史氏曰	(통감 신등안) 어린 왕을 도와 대신의 체통을 얻었음.
권7	李公遂(林樸)	史臣曰	(통감 신등안) 임박이 덕흥의 변때 죽었더라면 후일 신돈에 빌붙은 일생의 변화를 후대에는 알지 못하게 됨.

권8	王規	史氏曰	(통감 신등안) 고려의 권신의 발호는 처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음.
권8	四世權兇	史氏曰	(통감 신등안) 최씨 4적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임연·김인준을 제어할 수 없음.
권8	林衍	史氏曰	(통감 신등안) 왕의 위엄이 떨어짐이 이와 같으니 후세에 권간의 죄를 막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음.

다른 사람의 언설 가운데 『동국통감』에 수록되지 않았던 사론을 인용한 것은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崔致遠〉편에서는 큰 재주를 지녔으면서도 국내에 돌아와 풍월만 읊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에 대해 매계 조위의 말을 빌어 최치원이 본국에서 뜻을 펼치고자 하다가 산림에 은거한 것은 본심이 아니며, 때를 만나지 못하고 운명과 재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변호하고 있다.[49]

〈李資玄〉편에서는 이황의 〈過淸平山有感〉 시[50]와 그 序를 인용하였다. 퇴계 이황은 이자현이 풍류와 문아가 뛰어난 이로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매미처럼 허물을 벗어던져 버리고 만물의 의표로 기러기처럼 고고하게 살았는데, 『동국통감』에서 이자현을 심하게 폄하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韓惟漢〉편에서는 1558년(명종 13) 남명 조식이 5월 10일부터 16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리산에 올랐다가 엮은 〈유두류록〉의 일부 내용을 인

49) 『梅溪先生文集』 5, 「雜著」, 〈題崔文昌傳後〉.

50) 『退溪集』 1, 「시」, 〈過淸平山有感〉. "峽東江盤棧道傾 忽逢雲外出溪淸 至今人說廬山社 是處君爲谷口耕 白月滿空餘素抱 晴嵐無跡遣浮榮 東韓隱逸誰修傳 莫指微疵屛白珩" 서략은 원문에서 일부 축약하여 수록하고 있다.

용하였다.[51] 한유한의 옛 집이 있던 鍤岩에 이르러 한유한, 정여창, 조지서 세 군자를 높은 산과 큰 내에 비교하여 십 층의 높은 봉우리 끝에 옥을 하나 더 올려놓은 것이며, 천 이랑이나 되는 넓은 바다에 달이 하나 더 비치는 것이라고 절의를 극찬한 조식의 소회를 인용해 두었다. 쌍행 각주에서는 지리산에 은거하였으나 연산군에 피해를 피하지 못하였던 정여창과 조지서를 간단히 소개해 두었다.

〈安珦〉편에서는 주세붕의 『죽계지』〈서문〉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다. 안향을 東方 道學의 祖宗으로 평가하고, 섬학전을 마련한 공으로 문묘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비판하고, 사교를 배척하고 정도를 걱정한〔排邪憂正〕 뜻이 지극함을 언급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52] 또한 인민과 세상을 걱정하였던 안향의 甘露寺 詩를 인용하였다.[53] 경세적 의미가 다분한 안향에 대한 글과 시를 인용한 것은 학문의 정도를 세우고 백성들을 걱정한 안향의 생각을 인용하여 오운 자신의 우국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禹倬〉편에서는 우탁에 대해 경학의 밝음과 진퇴의 올바름이 다른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 후학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퇴계 이황의 〈易東書院記〉[54] 일부 내용을 수록하였다.

---

51) 『南冥先生集』 2, 「錄」, 〈遊頭流錄〉. "國家將亡 焉有好賢之事乎" "看來高山大川 非無所得 而比韓鄭趙三君子於高山大川 更於十層峯頭冠一玉也 千頃水面 生一月也" 又曰 "明哲之幸不幸 豈非命耶"

52) 周世鵬, 『竹溪志』, 〈序〉. "其仁勇至于易簀而不惰 語其所向之正 一洗三韓舊染 若益齋圃隱諸公 皆餘波所漸 逮本朝 禮樂敎化 已覺與三代竝隆 爾來二百四十年 天理之復明 文風之大興 其誰之力也 如公者 眞可謂東方道學之祖" "是獨不可以從祀乎 而麗史稱安某置贍學錢 以此從祀 其陋類此 竊聞公之詩 有曰香燈處處皆祈佛 簫管家家盡事神 獨有數間夫子廟 滿庭春草寂無人 其排邪憂正之意 可謂至矣" "且佔畢齋慕其昌歜 載得一句於靑邱集 一鳩曉雨草連野 匹馬春風花滿城 其氣像如化工 深味十四字 足以知公之心矣"

53) 안향의 감로사 시는 다음과 같다. "日暖庭花藏淺綠 夜涼山月送微明 憂民未得湔塗炭 欲向蒲團寄半生"

〈李兆年〉편에 인용된 이제현의 사론은 『동국통감』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쟁하는 신하가 있으면 무도하여도 나라를 잃지 않는다는 『익재집』의 이조년 묘지명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55] 그외 성주에서 영봉서원을 창건할 때 文烈 李兆年과 文忠 李仁復과 寒暄 金宏弼을 모두 合享하려고 하였으나 향론이 김굉필만 독향하려고 하였을 때 이황이 이조년에 대해 난세에 왕을 섬기면서 충직하였음을 들어 합향하도록 권유한 여러 논의[56]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李穡〉편에서는 이색이 신씨를 세우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하였다는 『고려사』의 언설을 인용하고 있다.[57] 또한 박상의 『동국사략』에서 이색이 신씨를 세울 때 반대하지 않았다고 적은 것에 대해 눌재가 어찌 이색의 본심을 알 수 있었겠는가고 비판한 『병진정사록』의 任弼仲 주장[58]을 인용하고, 또 『목은집』 중 이색의 충절을 보여주는 〈호불

---

54) 『退溪集』 42, 「記」, 〈易東書院記〉. "先生之忠義大節 旣足以動天地撼山岳 而經學之明進退之正 有大過人者 則爲後學師範 可以廟食百世者 非先生而誰哉" "先生之學 其亦有以脫去世習之陋 而有發於龍門之餘韻者矣"

55) 『益齋亂稿』 권 7, 「碑銘」,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經에 이르기를,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 5인이 있으면 비록 無道하여도 나라를 잃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공이 떠난 뒤에도 계속하여 간쟁할 수 있는 강직한 선비가 4, 5명만 있었더라면 岳陽의 辱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經曰 諸侯有諍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公之去也 若有骨鯁之士能繼而言之者四五輩 岳陽之辱其亦庶乎免夫)."

56) "公生於亂世 身事昏君 歷變履險 而志操如金石 忠直之風 動當時而聳後世 祀爲鄕賢 何不可之有" "至如文忠其賢 恐不及乃祖云"(迎鳳書院議)

57) 이 구절은 인용처로 '本史'를 적고 있다. 이 구절은 『동국통감』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고려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려사』 115, 「열전」, 28, 〈이색전〉).

58) 任弼仲, 『丙辰丁巳錄』. "訥齋集中 甲戌九月日 在秋城衙齋 牧隱先生見夢投詩一篇 吞其半 前數日與元冲論此老心事 得其實云 詩云 先正韓山世已遼 人間不朽挺嶢嶢 史家秉筆公何在 昭代凌煙影獨遙 所謂史家秉筆公何在者 蓋指當立前王之子事也 及訥齋撰東國史略 則引牧老嘗語人曰 昔晉元帝入繼大統 致堂胡氏論曰云云 而斷之曰 今穡於立辛氏 不敢有異論者 亦此意也 以今觀之 此筆亦豈牧老心事者 蓋難言也 革命時史筆 固不可盡信 嘗聞原州有元氏 藏其先祖元天錫遺稿者 天錫恭愍時人 與牧老諸公相往來 言當時事 後世

귀행〉 시와 안설,[59] 그리고 국화 시[60]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오운이 이색의 충절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吉再〉편에서는 김종직이 아버지 金叔滋의 행적을 적으면서 길재에게 나아가 수업을 받은 것을 기록한 『이존록』의 기사[61]와 밥짓는 계집종도 시를 읊으며 절구질하니 지금도 사람들이 鄭玄이 살던 鄭公鄕에 비유한다는 〈允了作善山地理圖〉 시의 일부[62]를 인용하였다. 이어 길재의 절의를 찬양한 퇴계 이황, 미암 유희춘의 『續蒙求』에서 길재를 평한 언설, 서애 유성룡의 지주비음기, 그리고 潛夫 魚無迹의 〈金烏山〉 시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

〈金澍〉편에서는 윤근수가 편찬한 「농암선생전」에 나오는 김주의 찬문을 인용하였다.[63] 내용은 김주가 백이 숙제와 같이 절의를 지킨 것을 극찬하고 있다.

所不能知者云"

59) 『牧隱詩藁』 14, 「詩」, 〈胡不歸行〉. "胡不歸胡不歸 汝旣老矣胡不歸 汝所天兮寘于天 汝獨留兮鼎湖波遠明斜暉 斜暉欲墜不可駐 風聲悲號天地亦爲之依依 獨榮華兮衣蓋膚而不露 獨醲鮮兮食充腸而不饑 有子一雙逐群彦 紅鞓金魚垂紫衣 胡不歸胡不歸 無不足兮奚所希 靑山隱隱水鏡淨 我膝所屈唯漁磯"

60) 『牧隱詩藁』 19, 「詩, 〈對菊有感〉. "人情那似物無情 觸境年來漸不平 偶向東籬羞滿面 眞黃花對僞淵明 龍沙漠漠又秋風 衰草連雲落照紅 折得黃花誰上壽 海西千里是行宮"

61) 『佔畢齋集』, 『彝尊錄』. "鄕先生吉公再 以嘗事高麗 辭祿於本朝 累徵不起 卜築金烏山下 敎授子弟 童冠雲集 其敎自灑掃應對之節 以至蹈舞詠歌 不使之躐等 公亦往受業焉"

62) 『佔畢齋集』 13, 「詩」, 〈允了作善山地理圖 題十絶其上〉. "爨婢亦能詩相杵 至今人比鄭公鄕"

63) 『月汀先生集』 권4, 「籠岩先生傳」. "贊曰 麗朝之亡 如鄭公夢周 李公穡 金公震陽 李公種學 吉公再 徐公甄之數君子者 或死或不死 而其義形於色 自靖於心 則同歸云爾 至於李來 乃直臣存吾之子 來亦以諫官 同金震陽 糾鄭道傳輩背國之罪 此則幾矣 而乃入惟新之朝 參佐命功 其視乃父有愧色矣 總之麗末之臣乃心王室者 固自有數人 夫以善之一府僅百里邑 而乃有吉公再 人不知又有如金公澍者 一時竝起於一鄕 方駕齊驅 追蹤夷齊 屹然爲千萬世人臣二其心者防 遺忠獨萃於一邑 斯固地靈之所鍾非耶 金烏之山巍然若增重者嗚呼盛矣哉 且沒世而名不稱 君子疾之 名固非可厭也 乃籠岩所立 如是之烈 而竟泯其迹不爲身後名計 欲使後世不復知有籠岩者 嗚呼 先生之高於人 殆未易量哉"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언설을 인용한 내용은 모두 충절과 의리에 대한 것으로 대상이 된 인물들의 절의를 포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치원, 이자현, 이조년, 이색 등에 대해 불교를 존신하였다거나 충절에 문제가 있다는 시비에 대해 그 부득이함을 언급한 선현들의 언설을 인용하여 절의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한유한, 안향, 우탁, 길재, 김주 등은 행동이나 학문의 뛰어남을 강조함으로써 당시까지 학문이나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절의정신의 전승을 강조하고 있다.

〈표 7〉「열전」 소재 선현 재인용 사론

권	인물	사론	내용
권2하	崔致遠	梅溪曰	최치원이 본국에서 뜻을 펼치고자 하다가 산림에 은거한 것은 본심이 아니며, 때를 만나지 못하고 운명과 재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임
권4	李資玄	退溪曰	이자현은 고고한 삶을 산 사람인데 이를 심하게 폄하함은 지나침.
권4	韓惟漢	南冥曰	한유한 등의 절의는 높은 봉우리 끝에 옥을 하나 더 올려놓은 것이며, 넓은 바다에 달이 하나 더 비치는 것임.
권6	安珦	愼齋曰	안향은 동방 도학의 시조임.
권6	禹倬	退溪曰	우탁의 학문은 世習의 고루함을 벗어났음.
권6	李兆年	李齊賢曰	이조년이 조정을 떠난 후 간쟁하는 신하가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악양의 치욕을 면하였을 것임.
		退溪曰	志操가 金石처럼 굳어, 忠直한 기풍은 당시를 감동시켰음.
권7	李穡	任弼仲曰	이색이 전왕의 아들 세운 것은 부득이한 방책이었음.
권7	補遺(吉再)	佔畢齋曰	김숙자는 금오산 아래에서 자제들을 가르친 길재에게서 수업함.

		退溪曰	길재는 지조가 고결하고 학문이 순정하며, 고려에 절의를 지킴.
		柳希春曰	길재의 정신은 옛 醇儒라 할지라도 이보다 지나치지 못할 것임.
		柳成龍曰	길재는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왕씨의 연호를 수십 년 지켰으니 참으로 砥柱임.
		魚潛夫詩曰	魚無迹의 〈金烏山〉 시.
권7	補遺(金澍)	贊(尹根壽)曰	김주는 백이·숙제와 마찬가지의 절의를 지켰음.

한편 자신의 사론을 붙인 것은 모두 14편인데, 그 대부분의 사론은 이전『동국통감』에 수록되었던 사론보다 도덕이나 충열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에서도 이전『동국통감』에 수록되어 있는 사론을 비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표 8〉 참조).

이들 사론에서 보이는 역사관을 종합하면 첫째, 오운은 이들 사론에서 국가의 인재 선발과 운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羅濟義烈〉편에서는 성충과 흥수에 대해 국가의 성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국가의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쓰는 계책의 적부에 달려 있다고 적고, 월의 구천과 오, 진의 사현과 전진의 부견, 을지문덕과 수군, 안시성주와 당군 등을 예로 들었다.[64]

〈李資玄〉편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동국통감』의 사론에서는 이자현에 대해 이름을 속이고 행실을 꾸미는 자이며 농민을 괴롭힌 자로

64)『동사찬요』 권2 하. "按自古國家之成敗 不在兵之衆寡 與國之强弱 只在人謀之臧否而已 句踐以孤軍破强吳 射玄以偏師摧符秦 此猶遠 而隋兵百萬 竟敗於文德之一人 唐宗自將不能拔安市之小城 故曰 輔周則國必强 今也 百濟之臣如成忠興首二人之得筭 若合符契使義慈君臣 早用其謀 固守地利 爲不可勝則 雖以唐羅大兵 豈遽能滅亡之哉 乃反虐殺之擯黜之 雖有階伯之義烈 奈受命於已失天險之後 身死國亡而已 是知國之將亡 非無謀臣而患在不用 噬臍無及 後之人君 尙鑑于玆"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이황은 오히려 이자현을 기러기처럼 고고하게 살았는데『동국통감』에서 이자현을 심하게 폄하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오운은 이에 대해 이자현의 사람됨이 좋은지 나쁜지는 훤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종이 선비를 대우하는 정성은 잘못되지 않았으니, 예종이 자기를 굽히고 어가의 노정을 바꾸어 현인을 초치하고자 한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안을 예종이 선비를 잘 대접하였던 사례로 간주하고 극찬하였다.[65]

〈鄭世雲・安祐・金得培・李芳實〉편에서는 홍건적의 화는 전례가 없는 것인데 그 공열을 이룬 이들을 참소로 죽인 것은 멸망을 재촉하는 조짐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고 앞서가는 수레가 엎어졌다면 그 이유를 살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이치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주위의 신하 가운데 왕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자가 없으니 이는 삼원수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려고 하였던 시가의 사람만도 못하다고 비판하였다.[66] 오운은 정세운과 삼원수가 金鏞의 농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아무도 왕에게 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하가 없었음과 공민왕이 소인들의 비방을 수용하여 장수를 죽임으로써 兎死狗烹이 되어 나라가

---

65)『동사찬요』권4. "按世之人君 甘爲亢龍 多恥下賤 雖勸之以樂善 導之以好賢 猶懼其自聖 若必待莘渭南陽之賢 然後加束帛之禮 則三代以下 無人乎君側矣 所以先從隗始 幽居帝畫 世爲美談 而不以爲非 若資玄爲人高下 雖不能灼知 睿宗待士之誠 不可非之也 惜其以如是好士之君 而贊襄無臣 不能正得其賢 而徒爲好文之歸 然其屈己移蹕 必欲致之 亦足嘉矣 史氏之深貶 亦獨何哉"

66)『동사찬요』권6. "按麗氏四百年來 外敵之患 莫如契丹蒙兵 雖連歲侵軼 而其長驅屠噉 未有若紅巾之禍者 乘輿奔竄於嶺外 京城淪沒爲賊窟 一朝迅掃 三韓再造 恭愍所謂割肥膚 尙不能報者 正宜今日道也 柰何擎天偉烈 曾不旋踵 駢首就戮於賊鏞之手 而王不省悟 宣旨不斬 而咫尺擅殺 終不之問 抑天厭王氏 奪其聰明 以基促亡之兆耶 竊嘗觀之 臨危撥亂 注意乎將 而功蓋一時 旋見忌疑 小人乘時 輒售鬼蜮 不曰擁兵謀反 則必曰軍心盡歸 必手毁長城 兎死狗烹而國隨以亡 前車旣覆 今古一轍 惟彼昏庸 不足深責 當時扈從之臣如李嵒柳濯洪彦博諸人 豈皆賊鏞之黨 而環視左右 無一人出一言以悟主 曾不若爭饋報功之市街人 讀史至此 孰不掩卷抆腕而淚滿襟者乎 嗚呼痛哉"

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67]

둘째, 명신으로 절의를 지킨 이들을 현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충절의 기록이 전하지 않아서 제대로 업적을 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新羅忠義傳〉편에서는 경순왕자의 의열을 魏에 항복하지 않고 자살한 北池王諶에 비교하면서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68]

〈元天錫〉편에서는 원천석이 절조를 지켜 죽을 때까지 한 점 더럽힘도 없어서 오늘날 사당을 세우고 서원을 지어 경모하게 되었다고 찬양하였다. 그런데 오운은 원천석을 열전에 넣으려고 보니 원고가 흩어지고 기록이 거의 없어 고려말의 일들을 모두 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69]

〈安珦〉편에서는 안향이 지은 감로사 시의 전편이 『승람』 김해부에 수록되어 있어 백성을 걱정하고 세상을 근심하는 뜻이 잘 표현되어 있으나

---

67) 동일한 사건에 공민왕의 책임을 묻는 점에 있어서는 『동사찬요』 보다 『여사제강』이 더 강하다(『여사제강』, 공민왕 12년조). 이것은 임진 직후 국왕권의 회복을 추구하였던 시기의 오운의 입장과 서인 정권이 강화되면서 국왕권에 제동을 걸려고 하였던 유계의 입장 간의 차이로 보여진다(박인호, 「여사제강 공양왕기의 산삭과 그 정치적 함의」, 『한국사학사학보』 7, 2003 참조).

68) 『동사찬요』 권2 하. "按王子義烈 可與北池王諶 爭光日月 而名不傳 不獨安市城主之失其名 東方文獻 埋沒可惜"
이 사론은 후일 유중교·김평묵의 『송원화동사합편강목』에도 인용되었다(권 1, 고려 광종 25년, 오운왈, 내제문화연구회, 60쪽).

69) 『동사찬요』 권7. "按耘谷先生 身際衰亂 知時事不可爲 夙自肥遯韜光林下 觀其錄籍 自寬時則人不知不溫 詠菊和絶則靖絶後一人 及乎湯幣殷勤聖駕躬臨 而益堅採薇之操 終守踰垣之志 其見幾高韜 至死不變 絶無點汚 此則一時冶隱諸君子 亦所不及 至於傷二君之作 忠憤謖然 遺篇短什 糊封書戒 使後世亦不復知有斯人 而一區雉嶽淸風颯爽 鄕論士論有百世不磨者 式至今日 立祠宇建書院 而聞風者聳慕 頃年韓公伯謙 千里貽書 道以纂入東史 往復再三 愚竊槪念以如是風節 尙未列史傳 玆敢就韓錄刪潤之 追更博詢士友 添刻補遺 諸公之次第 以原稿散亡殆盡 使麗末詩史實蹟 不得盡傳於百代之後 可勝嘆哉"

『죽계지』에 전하지 않음을 적고서, 안향의 저술이 후세에 전혀 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세붕이 혹 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고 적고 있다.[70]

이것은 모두 각 인물에 대해 절의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들이 있지만 후세에 전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는 사론이다. 오운이 『동사찬요』를 통해 인물의 열전을 정리한 것도 민멸해 가는 충절 인물들의 기록을 널리 소개하고 보존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셋째, 인물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충절이었으며, 불교와 도교와 같은 것을 존신한 점을 크게 허물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교 이외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간주하여 배척하였던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논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

〈崔沆·蔡忠順〉편에서는 최항에 대해 변고가 닥쳤을 때 고명을 잘 받들고 한 마음으로 도와 왕권을 굳게 지켜 왕업을 중흥시켰으므로 '節義' 시호가 마땅하며 부처에게 아첨한 것을 가지고 심하게 나무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71]

〈柳淑〉편에서는 신돈에 의해 죽임을 당한 柳淑을 안타까워하면서 유숙의 〈벽란도〉 시에 차운하였던 추강 남효온의 소회와 운시를 인용하고 있다.[72] 오운은 남효온도 생육신으로 酷禍를 면치 못하게 되어 후세 사

---

70) 『동사찬요』 권6. "按又有公題甘露寺詩曰 日暖庭花藏淺綠 夜凉山月送微明 憂民未得湔塗炭 欲向蒲團寄半生 今其全篇 載勝覽金海府下 其憂民傷世之意 溢於詠物之餘 以竹溪志 獨不載此詩 乃曰 公之所著 後世了無傳焉者 何謂也 豈愼齋偶未之見耶"

71) 『동사찬요』 권3. "按崔沆忠順 當兇邪燕啄 變在呼吸 克體顧命 一心協贊 使神器不淫 王業中興 雖古之丙霍 何以加此 其視叔季 罔念安劉 陰謀易樹 擅弄威福 誤宗社計者 語不可同年 宜謚節義 佞佛何足深責"

72) 오운은 柳淑의 〈碧瀾渡〉 시의 구절을 보고서 이에 대해 남효온이 남긴 "사암이 결국 속된 세상의 禍厄을 면치 못하여 그 충성스럽고 청렴한 절개가 끝내 대의명분 아래에 밝혀지지 못한 채 역적 辛旽의 무고를 받아 암암리에 죽었으니, 슬프도다"라는 소회와 이어지는 운시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람들로 하여금 슬프게 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73]

〈李穡〉편에서는 『목은시고』의 〈胡不歸行〉을 인용하고서 오운은 이 시의 語意로 보아 1389년(공양왕 1) 12월 長湍의 별업으로 내려가 있을 때 지은 시로 추정하면서 슬픈 마음과 걱정이 격렬한 것으로 보아 이색의 고려 왕조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적고 있다.[74] 오운은 어려운 일이 연이어 닥치고 행궁도 천리 밖에 있어 국화를 꺾어서 축수를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목은시고』의 국화 시[75]를 인용함으로써 이색의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강조하고 있다.[76]

넷째, 충성과 절의를 인물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 점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명신에 수록하고 있어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忠節과 正道는 『동국통감』의 사론을 작성하였던 조선전기 관학자들의 평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金富軾〉편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국통감』의 사론에서는 김부식이 정지상을 주살한 것에 대해 춘추의 적을 정토하는 뜻을 실현한

---

73) 『동사찬요』 권7. "按公碧瀾渡詩曰 久負江湖約 紅塵二十年 白鷗如欲笑 故故近樓前 南秋江曰 思庵竟未免紅塵之厄 其忠淸大節 終不見白於大名之下 爲賊吨所誣陷 黯黮就戮哀哉 且有和詩 未識靑雲路 江湖四十年云 而秋江未免酷禍 復使後人哀之 賊賢之徒 何代無之 痛哉"

74) 『동사찬요』 권7. "按牧隱集中有 胡不歸行一篇曰 胡不歸胡不歸 汝旣老矣胡不歸 汝所天兮賓于天 汝獨留兮鼎湖波遠明斜暉 斜暉欲墜不可駐 風聲悲號天地亦爲之依依 獨榮華兮衣蓋膚而不露 獨醲鮮兮食充腸而不饑 有子一雙逐群彦 紅鞓金魚垂紫衣 胡不歸胡不歸 無不足兮奚所希 靑山隱隱水鏡淨 我膝所屈唯漁磯 深味落句語意 則似在己巳年間 乞退歸長湍別業時作也 詩辭悽惋憂傷激烈 觀此 亦定以知公之心事也"

75) 李穡, 『牧隱詩藁』 19, 「詩」, 〈對菊有感〉. "人情那似物無情 觸境年來漸不平 偶向東籬羞滿面 眞黃花對僞淵明 爛熳開時爛熳游 煙紅露綠滿城浮 山齋又是秋風晩 只有黃花映白頭 仁熙殿北白沙岡 駐蹕群臣獻壽觴 病裏苦吟秋又晩 夢中時或侍先王 龍沙漠漠又秋風 衰草連雲落照紅 折得黃花誰上壽 海西千里是行宮"

76) 『동사찬요』 권7. "按對菊有感 人情那似物無情 觸境年來漸不平 偶向東籬羞滿面 眞黃花對僞淵明 龍沙漠漠又秋風 衰草連雲落照紅 折得黃花誰上壽 海西千里是行宮"

것으로 포찬하였다. 그러나 오운은 정지상이 묘청의 黨與였으므로 주살한 것은 의리에 마땅하나 다만 왕에게 먼저 아뢰지 않고 제멋대로 왕의 근신을 주살하였으니, 사람의 기롱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려조에 임금을 협박하는 풍습은 김부식이 길을 연 것으로 폄하의 뜻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77] 오운은 국왕에 대한 충성이라는 관점을 조선전기 학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文克謙〉편에서는 문극겸이 비록 과감히 바른 말을 하고 관직에서 파직당하여 사람들이 다투어 칭송하였으나 환난을 겪으면서 세도가의 청을 쉽게 잘 주선하였으며, 인물의 전주에도 사사로이 처리하고, 널리 田園을 마련하여 기롱을 당하였으므로 국화의 늦은 절개의 향기로움을 사랑한다는 시를 반복하여 읊조리게 만든다고 적어 사실상 만년 행적을 비판하고 있다.[78] 문극겸의 경우 정치를 잘 한다는 초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무신정권에 아부하여 절의를 버리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인물 평가에서 만년의 절의가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金甫當〉편에서는 『동국통감』에서 인용한 사론에서는 김보당이 임금을 구원하는 것을 임무로 여겼으므로 군주에 대한 충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오운은 유응규에 대해 使命을 받들면서 행한 節操는 부끄럽지 않을 일이지만 어지러운 시기에 명을 받고 흉도에게 덕을 취했으므로 김보당이 義를 들어 목숨을 버린 것과 비교해

77) 『동사찬요』 권4. "按妙淸之奸謀 從臾以成之者 知常等數人而已 則知常爲妙淸黨與明矣 命專討叛 義先誅黨 但咫尺宮門 非閫外在軍之日 而不先聞奏 擅誅君側之臣 難免時人之譏矣 其後子藩之執吳祈 李高之劫韓賴 善惡雖殊 大抵麗朝脅君之習 未必非富軾啓之也"

78) 『동사찬요』 권4. "按克謙遇荒淫之主 獨立敢言 晴雷霜日 不足以喩其烈 落職而名益高 去國而人爭誦 至使畵工入繪事 山僧詠於詩 英風勁節 照映千古 雖以兇悍如仲夫輩 聞名而不敢加害 折檻當車 蔑以加矣 惜乎更涉陰難 脂韋周旋 已媿素志 銓注循私 廣殖田園 取譏時人 魏公獨愛寒花晩節香之詩 令人三復不已也"

본다면 반드시 우열의 차이를 두게 된다고 적고 있으며, 白文節이 눈물로 간한 것은 正道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79] 오운은 비록 악의 도가 나타나는 시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는 하나 의를 들어 목숨을 버리거나 혹은 눈물로 간하는 것을 正道라고 간주하여 절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辛旽〉편의 아래에 있는 안설은 반적·권흉에 대한 총평으로 "적신으로 수록된 자는 모두 32명인데 늙어 편안하게 집에서 죽은 자는 겨우 몇 명일뿐이다. 저 간신과 권흉의 무리들은 왕을 시해하고 어진 사람을 해하는 데에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잘 뜻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나 끝내 자신과 가족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없게 되었으며, 비록 요행히 이를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천도가 환하게 비치어 재앙과 경사가 반드시 그 종류에 따라 응보하였다. 게다가 어진 사가의 도끼와 같은 붓이 있으므로 악을 저지른 자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역시 가히 경계할 줄 알아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80]고 적고 있다. 즉 적신은 반드시 응보를 받을 것이며, 특히 사가의 붓에 의해 뒷날 평가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운은 삼국과 고려의 적신들을 드러내어 사가의 붓을 통해 역사의 심판을 가하려 한다는 생각을 책의 마지막에 밝혀 이 책의 편찬 목적이 인물의 포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79) 『동사찬요』 권4. "按應圭之使乎一節 無愧於古人 但受命於亂邦 取德於羣兇 雖曰見惡人之道 以金甫當之擧義 舍生觀之 則尙論之士 必有優劣者矣 白文節閣筆泣諫 斯爲得正"

80) 『동사찬요』 권8. "按賊臣見錄者 止三十二人 而老死牖下者 纔若干而已 彼奸凶之徒 弑君賊賢 無所不至 自以爲得計而皆誅 及其身家無噍類 雖幸而免 天道昭然 殃慶必以類應 而有有良史之鈇鉞 然則人之爲惡者 果何益哉 亦可以知戒"

〈표 8〉「열전」 소재 오운 사론

권	인물	사론	내용
권2하	新羅忠義傳	按	경순왕자와 안시성주의 기록이 전하지 않음은 매우 애석한 일임.
권2하	羅濟義烈	按	국가의 성패는 군주의 사람을 쓰는 계책이 적절하냐 아니냐에 있음.
권3	崔沆・蔡忠順	按	최항과 채충순은 왕업을 중흥시켰으니 시호로 '절의'를 내린 것은 마땅함.
권4	李資玄	按	왕이 초야의 선비를 초치함은 아름다운 일임.
권4	金富軾	按	고려조에서 임금을 협박하는 풍습은 김부식이 길을 연 것임.
권4	文克謙	按	문극겸은 초기에는 준열하였으나 환란을 거치면서 절개를 버려 기롱을 당함.
권4	金甫當	按	김보당이 의를 들어 목숨을 버린 것에 비교한다면 유응규가 使命을 받든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절의의 관점에서 우열을 두게 됨.
권6	安珦	按	『승람』 김해부에 안향이 백성과 세상을 걱정하였던 시가 남아 있음.
권6	鄭世雲・安祐・金得培・李芳實	按	난을 바로잡기 위해 왕이 장수에 관심을 쏟다가도 참소를 받으면 내쳐버렸으며, 호종하였던 신하 가운데 한 사람도 임금의 잘못을 깨우치는 자가 없었음.
권7	柳淑	按	어진 이가 액화를 당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임.
권7	李穡	按	호불귀행 시의 시상이 처연함은 이색의 마음을 보여줌.
		按	국화를 마주하여 감흥이 있어 지은 시.
권7	補遺(元天錫)	按	원천석은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켰으며, 금일에는 사우와 서원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음.
권8	別錄(辛旽)	按	적신들은 스스로는 득계하였다고 여겼으나 자신과 가족을 멸하게 하였으며, 화를 다행히 면하였어도 천도에 따라 재앙이 있으며, 良史에 의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됨.

Ⅳ. 맺음말 - 사학사적 의의 -

이 논문은 오운이 편찬한『동사찬요』「열전」이 가지는 사학사적 의미를 찾아보려는 생각에서 작성되었다. 동시대 혹은 후시대의 역사가들은『동사찬요』에 대해「열전」에 장점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렇다면『동사찬요』「열전」의 어떠한 점이 사상적이나 정치적으로 다른 당색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높이 평가받게 되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체제가 전쟁을 통해 붕괴되는 현실 속에서 지방의 지식인에게는 충성과 절의가 중요한 이념으로 강요되었다. 또한 사림 중심의 새로운 정치상이 모색되면서 제도보다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더 중시하게 되었으며 인간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절의와 의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전기『경국대전』중심의 국가 체제 정비의 역사학적 산물은 바로『동국통감』이라고 할 수 있다.『동국통감』은 조선전기 관학의 역사학적 집대성으로 편년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편년 형태로 기술된 것은『동국통감』이 국가적 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제도적 전개 등이 중시되던 시기의 역사학적 산물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동사찬요』에서는 편년적 기술 속에서 사라진 인간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때의 인간 활동에는 이전보다 도덕적 명분과 절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오운의 역사인식에 대해 동인으로서의 입장이나 퇴계학과 남명학의 접점으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러한 측면은 후대의 정치적 입장에서의 소급하여 보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전쟁 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고 사림으로서의 의식 확립이 요구되었던 시

대적 배경이 중요하며, 이 때는 왕조에 대한 충성과 의리 관념이 새로운 시대사상으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동사찬요』에서는 『동국통감』에서 보였던 개국이나 개혁 등의 국가와 제도의 측면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충성과 의리가 더 중시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오운은 『동사찬요』「열전」에서 과거의 인물을 정리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린 명신, 외침이나 국난 속에 떨어졌을 때 나라를 구한 무장, 참소로 인해 핍박을 당하면서도 충성과 충언을 행한 인물을 특별히 뽑아 수록하고 있다. 특히 반적과 권흉에 대해서는 제 명대로 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결론 격으로 적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도되었던 가치 기준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또한 김보당, 조위총 등에서 보이듯이 일의 성패는 논할 바가 아니라고 전제하며 김보당이 의를 취하여 일어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조위총의 반란은 사사로이 원수를 갚고자 격동하였으므로 반적으로 간주하는 명분론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명분론적 자세는 조선전기 관학자들이 김보당이나 조위총 반란에서 일의 성패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 논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오운이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옛 것을 끌어 현재의 것을 증거〔攬古證今〕하려는 것으로, 바로 옛 것을 통해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현재의 일에 거울로 삼으려는 것이었다.[81] 이는 전형적인 조

81) 『동사찬요』〈발문〉. "余經龍蛇亂離來 屛跡窮巷 思見東史 攬古證今 隣有友借其家藏三國史節要及東國通鑑 因得覽閱 自吾東方有國之後 君德之昏明 賢邪之消長 興亡之殊跡 交隣之失得 可鑑可戒者 視他史尤爲切近 而老惛且病 過眼輒忘 竊自慨然 思欲謄寫展玩 則三韓以上 文獻無徵 麗紀以下 記載汗漫 輒不自揆 就其中而撮其要 至於三國以後名臣言行 隨手抄列 旋念善惡俱存 勸懲斯備 乃拈出叛賊權兇之尤者 別錄于下 庶幾親賢爲寶 霜氷知戒 第恨史籍殘缺 耳目孤陋 蚌珠有遺 魚目或混 初非要質具眼 祇欲私便記臆 不意

선시대 유교적 역사관의 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춘추와 포폄의 도덕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열전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할 때는 그 만큼 인물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른 폭발성을 지니게 된다. 이후 시기에는 인물에 대해 관심이 점점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확고히 정립된 충절이라는 기준을 후퇴시키거나 대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주자학적 가치를 굳건하게 유지하게 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참고문헌 】

『高麗史』(金宗瑞外), 『久菴遺稿』(韓百謙), 『南冥集』(曺植), 『東國通鑑』(徐居正外), 『東史纂要』(吳澐), 『東巖集』(權省吾), 『梅溪集』(曺伸), 『牧隱詩藁』(李穡), 『丙辰丁巳錄』(任弼仲), 『三國史記』(金富軾), 『三仁錄』(李尙逸), 『宋元華東史合編綱目』(柳重敎・金平默), 『麗史提綱』(兪棨), 『月汀先生集』(尹根壽), 『益齋亂稿』(李齊賢), 『一善志』(崔晛), 『佔畢齋集』(金宗直), 『竹溪志』(周世鵬), 『竹牖先生文集』(吳澐), 『退溪集』(李滉), 『海東雜錄』(權鼈), 『彙纂麗史』(洪如何)

김순희, 「오운의 〈동사찬요〉의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연구』 24, 서지학회, 2002, 393-420쪽.

박인호,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7, 29-61쪽.

박인호, 「여사제강 공양왕기의 산삭과 그 정치적 함의」, 『한국사학사학보』 7, 한국사학사학회, 2003, 14-17쪽.

박인호, 「전통시대의 신라인식」, 『역사교육논집』 40, 역사교육학회, 2008, 336쪽.

박장승, 「계림부(경주부) 간행 〈동사찬요〉에 대하여」, 『경주문화』 9, 경주문화원,

傳播士友 繡諸梓而印布世也"

2003, 300-313쪽.
정구복, 「16-17세기의 사찬사서에 대하여」, 『전북사학』 1, 1977; 『한국근세사학사』, 경인문화사, 2008, 131-157쪽.
한영우, 「17세기 초의 역사서술 - 오운의 〈동사찬요〉와 조정의 〈동사보유〉 -」, 『한국사학』 6, 1985;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10-49쪽.

Abstract

O Un' Perception of History Shown in『Dongsachanyo』「Yeoljeon」

Park, In-Ho

Most of『Dongsachanyo』consists of「Yeoljeon」. Given the part of「Yeoljeon」, this book initiated literary works specialized in exploring characters, which had begun to publish since the middle Joseon.

The introductory notes, which shows the basic principle of description, was Article 13 in Volume 8 of『Dongsachanyo』; then changed into Article 16 in Volume 11 of『Dongsachanyo』. The principle of description covers the application of strict praise and censure, description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characters, accurate citations, comprehensive data collection for the Principles party in the late Goryeo.

O Un′ particularly listed the characters who were courageous enough to give a direct advice under the harsh situation, or were stick to his loyalty and fidelity to his principle despite detractions on him. In particular, it suggests the criteria of evaluation, loyalty and obligation, in the conclusion that one who exercises his authority excessively will pay off, and even after death he is supposed to be punished. Additionally, success or failure of a matter was not considered important but rationale was employed for the evaluation of characters, which is somewhat a different viewpoint from that of the Bureaucrats in the early Joseon that included success or failure of a matter as an important value.

What O Un′ tried to emphasize on through it was to testify the present thing by dragging in an old thing. Eventually, this value led to attract the historians of all the Southerners and the Westerners schools in the following generation.

Key Word

O Un, 『Dongsachanyo』, 「yeoljeon」, introductory notes, praise and censure, the guiding principle of Confucius in writing the Annals, loyalty, Confucian moralism

▪ 논문투고일 : 2011.12.4 심사완료일 : 2012.2.7 게재결정일 : 2012.2.10